

사회주의 엘리트는 어떻게 되었나?

구동독과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사회구조들

미하엘 호프만, 독일 예나대학교 교수

사회구조적 변화에서 이른바 소련식 인민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 모든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시 엘리트 층에서 사회구조적 변혁이 일어났다. 이전의 부르주아나 귀족 엘리트들은 거의 모든 권력을 잃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주의 특권층은 강화된 교육을 통해 양성되었다.

구동독의 예에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특권층 구조를 잘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교육 혁명을 거쳐 양성된 세 개의 지도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특권층은 조직의 간부와 권력의 행정 담당자(국가 고위층, 군인, 안보 담당자 등)들로 이들은 지위와 경력 지향적 환경을 만든다. 두 번째는 국영 기업의 대표와 관리자(공장장, 엔지니어, 기술자)들로 이들은 합리적-기술 관료적 환경을 만든다. 세 번째 특권층은 (사회주의적) 문화와 교육 담당자에게 계몽적 요구를 하는 사람들로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와 학자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부르주아-인문주의적 환경을 형성한다.

이 세 개의 사회적 환경은 전체 국민의 1/4에 달한다. 사회주의 특권층은 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하도록 해 준 것에 대해 국가에 감사하며 사회주의 체제에 특별히 충성한다.

구동독의 몰락에도 사회주의 특권층은 놀랍게도 잘 살아 남았다. 특히 지위 중심적이며 기술관료 환경에 속했던 사람들은 통일된 독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좋은 사회적 조건과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주아-인문주의 환경에 속한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과 희망이 다양한 인문주의적 사회 형태로 계속 남아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볼 때, 구동독의 몰락으로 어떤 계층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적 격차는 더 커졌지만 동독 지역에서는 위에 있던 사람은 위에, 중간에 있던 사람은 중간에, 아래 있던 사람은 아래에 머물렀다.

2009년 12월

[문제 제기]

소련식 인민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들의 사회구조적 발전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과거의 부르주아적이거나 토지 봉건적 구조와 단절을 한 후 이들 국가의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회주의 특권층을 창조하였다. 인민민주주의 또는 그들이 스스로를 칭했던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는 이렇다 할 중간 계층이 없는 사회이며, 노동과 농민으로 이루어진 대중과 사회주의 특권층이 대립되는 사회다.

이하에서는 동독 지역의 사회 (구조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다룰 것이다. 이때 지금까지의 구조적 변화들을 다시 짚어 보면 아래의 포괄적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사회주의 특권층은 어디서 왔으며 소련식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떤 사회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
2. 구동독의 사회적 안정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가?
3. 구동독의 평화 혁명의 내적 사회 세력과 주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4. 마지막으로 1989년 이후 동독 지역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통해 평화 혁명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동독 지역의 사회구조가 서독 지역과 어느 정도까지 비슷해졌는가를 진단해 본다.

사회구조사의 큰 문제는 구동독의 사회학적 구조 연구가 매우 일방적이어서 구동독 시절의 얼마 되지 않는 자료와 1990/91년 이후의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진행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사의 큰 문제는 구동독의 사회학적 구조 연구가 매우 일방적이어서 구동독 시절의 얼마 되지 않는 자료와 1990/91년 이후의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진행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회학적 기본 단위로 계급이나 계층이 아닌 “사회 환경”을 사용한다. 사회 환경은 비슷한 삶의 경험과 기본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묶으며, 계급이나 계층에 비해 수직적인 상위나 하위뿐만 아니라 전통적 환경과 전위적 환경의 문화적 차이처럼 사회 집단 간의 수평적 차이, 즉 문화적 차이들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구동독의 사회주의 혁명

2차 대전 후 독일의 소련 점령 지역인 동독에서는 서독처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부르주아 사회 구조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동독 지역에서는 -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 실제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의 부르주아 계층과 귀족 엘리트(기업가, 은행가, 군부, 다수의 학자)는 탈나치화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었다. 1961년까지 대부분의 좋은 배경을 가진 2백만 명의 난민이 서방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상위 계층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그 결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의 사회 변화로 인해 구동독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자 계급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권력을 빼앗긴 부르주아 계급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엘리트들이 급히 편성되었다. 구동독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까지 대대적으로 교육에 힘써 새로운 교사, 기술자, 경제 전문가, 행정 지도자, 안보 전문가, 정치 간부들이 양성되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한 집단의 대다수는 숙련 노동자 출신이었다. 교육의 기회를 조기에 개방하고 책임 있는 위치로 대대적인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체제에 충성스럽고 국가와 당에 충실한 사회 환경이 구동독의 상위 사회 영역에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특권층이며, 이는 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집단은 권력의 관리자(지위 중심적 환경)이며, 주로 사회주의 법학, 마르크스-레닌주의 또는 정치경제를 전공한 당과 국가 간부들이다. 둘째는 사회주의 산업의 지도자(기술주의 환경)로 특히 기술 관련 학문이나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문화와 교육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인문주의적 환경)과 교수, 의사, 예술가, 문화인, 지식인들이 많이 필요했다. 교육학이나 예술, 문화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신분 상승을 할 기회가 있었다. 사회주의 특권층은 구동독의 사회구조적 특수성으로서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형성된 폭 넓은 사회주의 상류층이다. 이들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에 대해 국가에 감사하며 사회주의가 몰락할 때까지 존재했다. 러시아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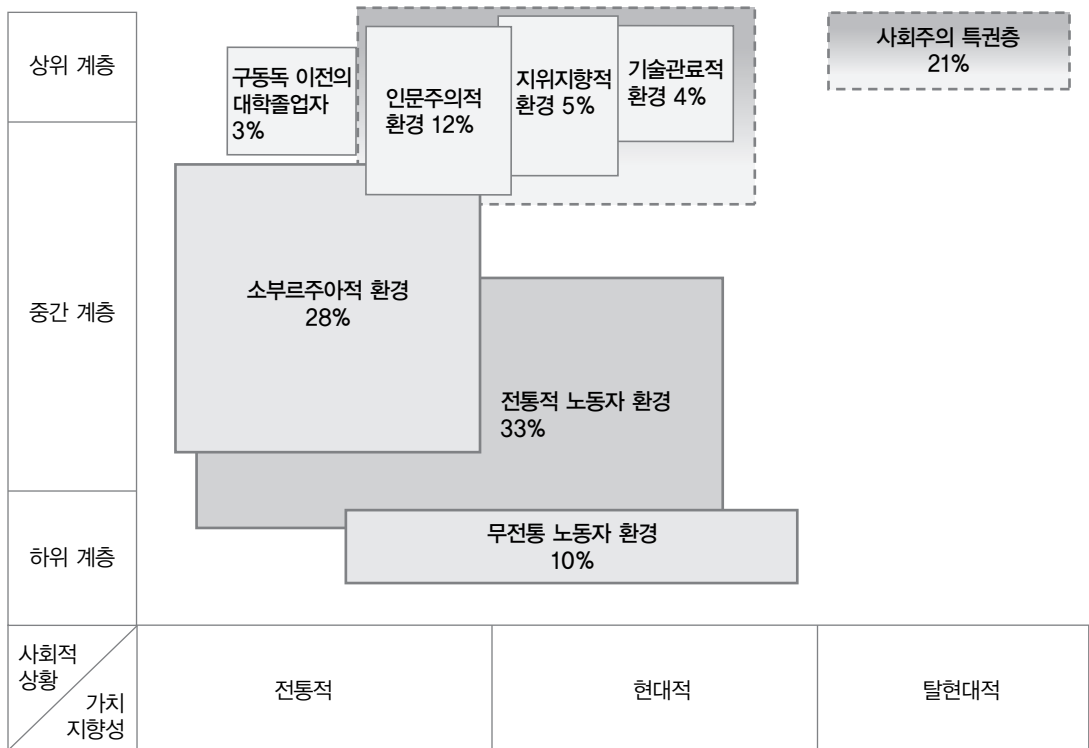
교육의 기회를 조기에 개방하고 책임 있는 위치로 대대적인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체제에 충성스럽고 국가와 당에 충실한 사회 환경이 구동독의 상위 사회 영역에 만들어졌다.

‘노멘클라투라’라 불리는 이러한 사회주의 특권층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구현하는 모든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일 정치 지도부 하의 엘리트층을 포괄한다.

사회주의 특권층과는 달리 국민의 전통적 일부인 노동자 환경과 소부르주아 환경도 동독의 정치 상황에 적응해야 했다. 동독에서는 특히 노동자 환경이 경직되어 있다. 마지막까지 동독의 사회적 삶은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자와 소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국민의 대다수는 전통적 환경에 머물러 있었다.

구동독의 사회 구조 상황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도표 1] 1955년 구동독의 사회적 환경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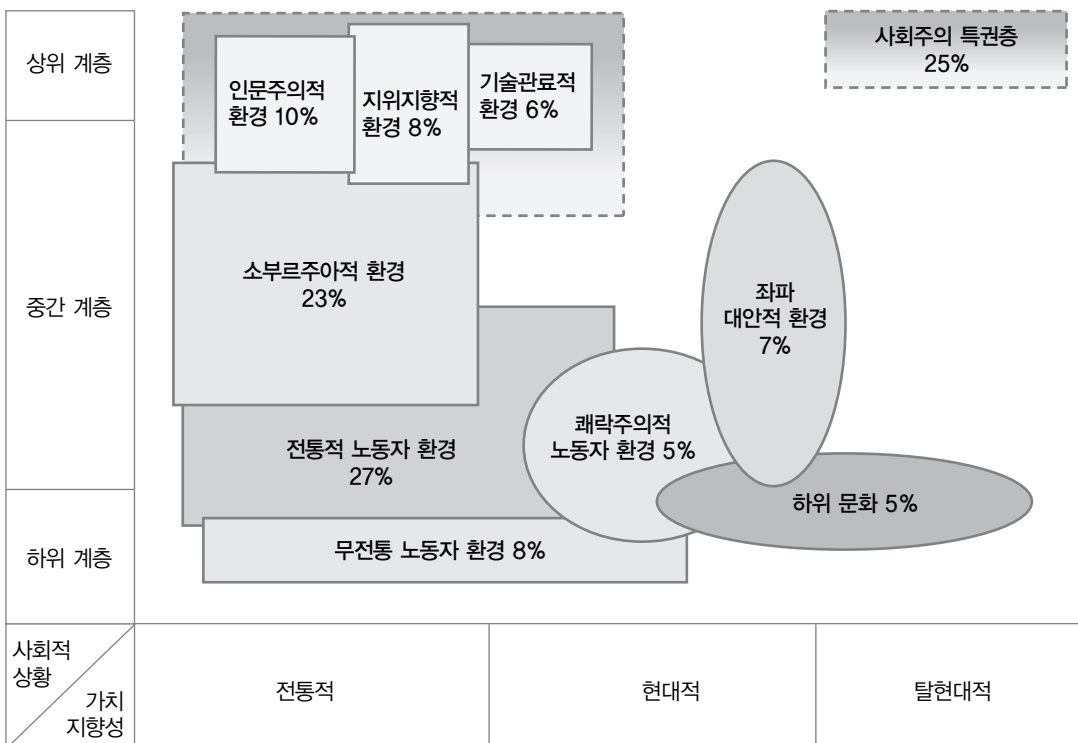
출처: 1991년 Sinus-Milieus를 토대로 역사적으로 재구성한 구동독 사회 환경에 관한 자체적 기술

[2. 동독의 사회적, 문화적 분화 과정]

1960년대 중반 사회주의 교육 개혁이 끝난 후에 사회주의 특권층은 자발적으로 구성되었고, 구동독의 후반기에는 마치 납관처럼 전통적 환경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이 때문에 대량 신분 상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주의 사회의 사회 이동성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크게 감소한다.

그렇지만 1970년대에 동독에서도 현대적인 생활환경이 생겨난다. 동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호네커의 사회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량 소비, 대중 관광, 그리고 특히 서방의 대중 문화와 음악 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 시기에 사회화가 된 사람들도 동독에서 생활환경의 현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사회적 환경이 생겼지만 이에 속한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거나 신분이

[도표 2] 1989/90년 동독의 사회적 환경



출처: Becker, Ulrich에 따른 구동독 사회 환경의 기술; Becker, Horst; Ruland, Walter(1992): Zwischen Angst und Aufbruch, Duesseldorf und Flaig, Berthold Bodo; Mayer Thomas; Ueltzhoeffer, Joerg(1993): Alltagsaesthetik und politische Kultur, Bonn

평화 혁명의 주역들은 대부분 구동독의 마지막 20년 동안 형성된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배출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출국 신청을 한 사람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류는 채택주의적 노동자 환경 출신이다.

상승되기도 어려웠다. 동독의 현대적 사회 환경은 서방의 현대적 사회 환경이 걸었던 이른바 ‘제도들 사이의 기나긴 여정’을 걸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 지향적, 교육 지향적 또는 하위 문화적인 생활 양식도 동독과 거의 아무 관계가 없다. 이들은 자신의 보금자리 내에서 자신의 관심사나 음악에 몰두하거나 종종 교회의 지붕 아래서 동독의 좌파 대안적 특권층을 구축하려 했다.

그러므로 후기 동독의 사회적 핵심 구조는 사회주의 지도층에 가려진 전통적 국민 환경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계층에서는 젊은 숙련노동자와 대안적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현대화된 환경이 형성되었다.

평화 혁명의 주역들은 대부분 구동독의 마지막 20년 동안 형성된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배출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출국 신청을 한 사람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류는 채택주의적 노동자 환경 출신이다. 좌파 대안적 환경은 민권운동가 환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민 환경에서도 1980년대에는 산업과 도시의 명백한 몰락과 함께 체제에 대한 충성을 버렸으며, 심지어 사회주의 특권층 내에서도 개혁가가 있었다.

3. 세분화 및 새로운 형성

1990-2004년 동독 지역의 환경 변화

90년대 동독 지역에서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 동독 지역의 사회 이동성은 아주 높았다. 90년대에는 매년 모든 사회적 지위(일자리와 직업/직위)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었다. 직업적으로는 상당수의 경우 직위나 일자리를 잃어 신분이 하락하였다. 예를 들어, 1993년 현재 23%가 신분이 상승했고, 77%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이 하락한 사람들 중에는 특히 전통적 환경 출신의 노동자와 회사원이 많았다. 동독 지역 최대의 사회 환경인 전통적 노동자 환경의 산업 토대가 붕괴했다. 전통적 생활환경의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서 구조적 하락을 소화할 수

있었으나 숙련노동자 환경에서는 더 이상 “후계자”가 없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속 직업을 몇 대에 걸쳐 자녀에게 대물림 하던 산업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숙련노동자 왕조”가 와해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 환경은 변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2004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독일의 생활환경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가장 안정적인 소부르주아 환경 역시 상당히 위축되었다. 물론 동독 지역의 자영업 중산층이 부분적으로 다시 활성화되면서 소부르주아 환경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학자들이 “무전통 노동자 환경”이라 부르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쾌락주의적 환경과 함께 동독 지역의 하위 계층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동독 지역 주민의 거의 1/4이 여기에 속한다.

많은 정치적 기대와 여론에 자기들이 겪는 고층을 표현한 것과 달리 사회주의 특권층은 변혁 과정에서 첫 번째 역사적인 부하 시험 (Bewährungsprobe)을 놀라우리만큼 잘 치러 냈다. 3차 산업으로의 이동 과정, 즉 현대 서비스산업을 통해 이들은 새로운 재생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술관료 환경에 속한 사람들은 구동독 산업과 경제조직의 구조조정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주체들이다. 동독 지역 창업자의 대다수가 기술관료 환경 출신이다. 이 분야에서도 신분의 하락이 있었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슈타지에 협조한 이유 등으로 인한 정치적 배제와 연관이 있다. 그 외에 다수의 기술관료들은 1990년대에 신분 상승했다. 기술관료 환경은 지위 지향적 환경과 현대적 부르주아 환경에서 싹텄다.

지위 지향적 환경의 경우, 변혁의 초기에 사회주의 시절 정치 간부를 하다가 자본주의적 서비스 업종으로 몰려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혔다. 구동독 시절 체제 순응적이며 신분 상승을 지향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경직된 사회에서 빠르게 신분이 상승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 분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적 관직과 구동독 국가 공무원, 군, 슈타지, 엘리트 스포츠 등이 있다. 통일 이후 이들은 방출되어 신생

많은 정치적 기대와 여론에 자기들이 겪는 고층을 표현한 것과 달리 사회주의 특권층은 변혁 과정에서 첫 번째 역사적인 부하 시험 (Bewährungsprobe)을 놀라우리만큼 잘 치러 냈다. 3차 산업으로의 이동 과정, 즉 현대 서비스산업을 통해 이들은 새로운 재생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변혁은 의학, 문화, 교육 등의 고전적 분야의 교육 지향적 사람들이 더 나은 지위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노동자에 비해 훨씬 더 높아진 대학 졸업생의 소득으로 인해 동독 지역의 특수한 교육 환경, 원한다면 부르주아화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차별화하고 구분하였다.

노동시장을 정복할 수 있었던 최초의 부류들이다. 모든 정치적, 도덕적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로운 행정부, 은행, 보험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새로 구축되거나 확장된 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는 이런 이유로 구동독의 특권층에게 상당수 돌아갔다.

인문주의 환경이라 불리는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부르주아 계층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이 환경이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과 사회적 자기정체성 찾기를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정신 및 계몽 정신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변혁은 의학, 문화, 교육 등의 고전적 분야의 교육 지향적 사람들이 더 나은 지위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노동자에 비해 훨씬 더 높아진 대학 졸업생의 소득으로 인해 동독 지역의 특수한 교육 환경, 원한다면 부르주아화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차별화하고 구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과 사법 분야에서 특히 좋은 직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승리자는 대개 서독의 엘리트였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식 사회관이 정당성을 잃은 탓도 있다. 이런 이유로 동독 지역의 인문주의 환경에서는 두 개의 극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엘리트 경쟁에서 대부분 굴복하여 직업적으로 확고하게 통합되지 못했으며, 자신의 계몽적이며 사회주의적 정신을 통합 이데올로기로 확실히 믿는 지식인이다. 이들은 구동독에 뿌리를 둔 계파이다. 민주사회주의당(PDS)의 후신인 좌파정당(Die Linke)은 사회주의 특권층에게 일종의 “생활환경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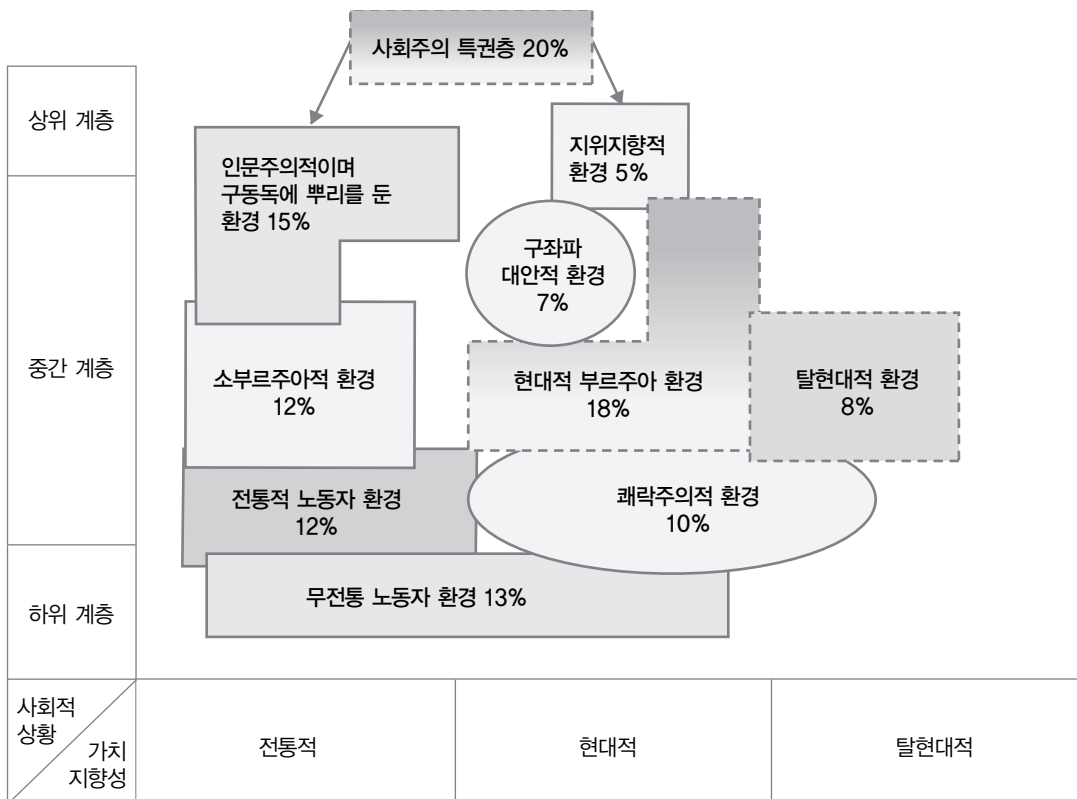
인문주의 환경의 또 다른 극은 좀더 확실히 뿌리를 내렸으며, 여기에서는 생활환경들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미 구동독에서 80년대 감지되기 시작한 “부르주아화”는 통일 이후 견고하게 지속되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신분이 상승한 기득권자는 새로운 행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독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가 된다. 물론 이들은 사회주의 경험으로 인해 서방의 특정 민주주의와 자유의 경험에 대해서는 종종 거리를 두고 이들과는 다른 정의와 평등관을 갖고 있다.

구동독에서는 거의 통합되지 않았던 쾌락주의적 노동자와 하위 문화의 현대적 사회 환경은 변혁 과정에서 폭넓은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대부분 동독 지역의 산업 중심지에서 일하는 쾌락주의적 노동자는 대중 소비와 미디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는다. 이들은 청소년(음악) 세계와 청소년 문화와 함께 쾌락주의적 환경에 융합하는데, 이제 이런 현상은 중부 유럽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즉, 이는 동독 지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구동독의 많은 시민운동가들의 생활환경인 좌파 대안 환경에서는 민주주의적 가능성들로 인하여 서독의 68세대처럼 서서히 본래의 환경을 벗어나 기술 관료적이거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생활환경으로까지 뻗어 나가는 다수와 자신의 대안적 생활양식을 고집하는 소수 사이에서 강력한 분화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변혁의 사회구조적 사건들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표 3] 2004년 동독 지역의 사회적 환경



출처: Burda Advertising Center(2000)를 토대로 한 동독 지역 사회적 환경의 자체적 기술: Typologie der Wuensche, Offenbach

1. 전통적 생활환경의 축소
2. 생활환경의 세분화 및 현대화 (동독 지역에서 대다수의 사회 환경은 이제 현대적 생활환경이다.)

사회 공간은 와해되었다. 수직적(빈부), 수평적(전통적-현대적) 차원에서 모두 사회적 차이는 더 커졌다. 동독 지역의 사회 환경 역시 점점 더 소규모로 되고 세분화된다. 이제 국민의 1/4을 포괄하는 규모가 큰 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소규모 사회 환경들의 수가 많아졌다. 그 수는 9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동독 지역에서는 사회적 중간 핵심의 공백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특히 강력한 중간 계층 환경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서독 지역에서는 현대적인 능력 중심의 노동자 환경이 이 틈을 메우고 있다. 이 환경은 동독 지역의 현대적 부르주아 환경보다 2배 가량 크다.

마지막으로, 도표 3에서 특히 무전통 노동자 환경과 쾌락주의적 환경으로 이루어진 하위 계층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결정적인 10년 동안에

- a) 전통적 생활환경이 58%에서 39%로 축소되었다. 여기에서 신분 하락과 지위 상실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동독 지역의 전통적 국민 환경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 b) 구동독 시절의 엘리트인 사회주의 특권층은 사회 변혁 과정을 잘 극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독 지역의 이러한 환경 변화는 사회적 조건의 대대적인 전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에 있던 사람은 위에 머무르고, 밑에 있던 사람은 여전히 밑에 머무르고, 다만 그 간격이 점점 더 커질 뿐이다.
- c) 변혁 과정에서는 동독 지역에서도 새로운 이른바 탈현대적 환경, 특히 그 중에서도 쾌락주의적 환경이 생겨났다. (쾌락주의는 향유를 억제하거나 금욕을 하지 않는 향유 지향성을 말한다.) 젊은 신생 사회 집단들은 어렵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현대적 중간 계층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어느 선까지만 적응하고 소비를 억제한다. 이들은 출세 지향적이거나 음악과 소비 지향적인 젊은이들로서 여기, 오늘, 그리고 지금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 동독 지역의 이러한 환경 변화는 사회적 조건의 대대적인 전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에 있던 사람은 위에 머무르고, 밑에 있던 사람은 여전히 밑에 머무르고, 다만 그 간격이 점점 더 커질 뿐이다.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들은 교육기관이나 대기업이 하는 신분 상승에 대한 약속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모든 서방 사회에서 생겨나고 있으며 동독 지역에서는 그 규모가 특히 크게 성장하였다.

[4. 결론]

독일 통일은 사회 공간의 상층에서 가장 잘 작동하였다. 사회주의 특권층이 후기 사회주의 사회의 현대적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한 반면, 소부르주아와 숙련노동자 출신의 경직된 사회 환경은 축소와 세분화 과정을 겪어야 했다.

동독 지역에서는 현대적 중간 계층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취약하며 사회 환경의 40% 밖에 되지 않는다(서독 지역은 60%). 서독과 마찬가지로 동독 지역도 탈현대적 생활 문화의 실험장이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급속한 사회 변혁 과정은 동독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동독 지역을 말할 때 지금까지는 특히 방어, 전통적 환경에서의 신분 하락과 축소에 저항하는 투쟁을 논하였다. 동독 사회는 여전히 노동자와 소부르주아 출신들로 구성된 좀더 전통적인 독일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사회 문제들이 전통적 환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취약한 현대적 중간 계층은 동독 지역의 사회적 핵심 구조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동독 지역은 아직 현대적 중간 계층 사회에 도달하지 못했다.

구조적으로는 동독 지역이 사회구조 발전의 “중간 계층 단계”를 아직 완전히 형성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다. 동독은 서독의 중산층 사회와 같아질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동독 지역의 사회 변화는 “따라잡지 못하면서 추월하기”의 특징을 보이는 것 같다.

동독 지역에서는 현대적 중간 계층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취약하며 사회 환경의 40% 밖에 되지 않는다(서독 지역은 60%). 서독과 마찬가지로 동독 지역도 탈현대적 생활 문화의 실험장이 되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새롭고 강력한 탈현대적 사회 환경과 생활환경이 동독 지역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이런 생활환경은 문화를 향유하며 직업적으로 힘겹게 살아 남는 전략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여기에서 삶의 경험과 패치워크 전략이 생겨난다. 사람들은 이 전략을 이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보장하고 뿌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을 향유하는 법과 특히 생존 방법을 시험한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생활환경에서 아주 새로운 동독의 목소리를 듣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발 행 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 집 인 베르너 캠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가나다 순)

주 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9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